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1호 【루계 제23358호】주제100(2011)년 2월 10일(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대고조격전장들에서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대고조격전장들에서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도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경옥동지, 윤정린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재동지, 리명수동지가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는 이날 공연무대에 선동시 《조선의 2월》, 녀성 5중창 《행복의 노래》, 혼성중창 《영광을 드리

자 위대한 우리 당에》, 중창이야기 《열가지 중대관리준칙의 노래》, 극제담 《최초소식》, 기악병창 《내가 지켜선 조국》, 촌극 《친아들》, 남성중창 《발걸음》, 혁명영화선동 《친위전사》, 합창 《천세만세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리라》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내재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령도의 사랑의 품속에서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며 선군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시대정신이 내재치는 열정적인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위력

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조선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에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고 진실하고 전투적인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혁명군대의 예술인답게 강성대국건설의 전초선인 최첨발전선건설장을 비롯 한 대고조격전장들에서 정치선전, 경

계선동을 맹렬히 벌려 군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겨주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은 군인교양의 위력한 수단인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예술선전대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군부대 전체 예술선전대원들은 인민생활대고조전군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며 따뜻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과감히 벌려 부대의 전투력강화에 적극 기여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보도하였다.

1월 26일 라오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새로 건설된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격강의실, 전자열람실을 비롯한 학습당의 내부와 외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상태,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의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 아니라 모든 설비들이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갖추어졌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학습당을 도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학습당의 리용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또한 민수대 창작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창작사의 구내에 새로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보신 다음 공훈조각창작단을 비롯한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미술창작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에 무한히 충직한 창작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기간 창작기지를 끈튼히 꾸리고 국보적의 의를 가지는 조선화, 조각, 수예품,

공예품을 비롯한 명작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미술사에 특기할 공적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사를 주시였다.

에리트의 TV방송과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 쿠웨이트신문 《쿠웨이트 타임스》는 1월 24일과 25일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에리트 오라스크전기통신회사 리사장을 접견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홍남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료련합기업소의 종업원예술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내달리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전투적기상을 과시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예술소조원들이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통신은 또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에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예술선전대원들은 녀성 5중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혁명강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고상한 도덕품모를 반영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감사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예술선전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였다.

통신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신흥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공장의 기술개선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현대적인 기계들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신화망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생활대고조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합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체코피주제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코조선친선협회 인터넷광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 이란신문 《이란 뉴스》도 우와 같은 소식들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국 청소년 학생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답사

백두산밀영 고향집에로의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답사행군이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다.

행군대원들은 답사기간 보천보혁명전적지, 삼지연못가, 청봉속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백두산밀영에 건립된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해산을 출발하여 보천보에 도착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보천보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지휘와 당시의 일제의 경찰관주제소, 면사무소 등을 돌아보며 조국땅에 멸적의 총성을 울리시어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였다.

그들은 보서리샘물터와 중흥동판, 로데, 리명수혁명사적지, 청봉, 진창속영지를 참관하였으며 행군도중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연구발표모임, 혁명가오대렬합창, 전투속보환간, 문밖시학습경연 등을 진행하였다.

행군대원들은 6일 백두산밀영교향집을 방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조선의 기상안고 높이 솟아 빛나는 정일봉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 2.16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평양 2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드니아, 브라질, 타이에서 강연회와 영화감상회가 1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은 로드니아군로자협회, 브라질 쌀 바울로주 쌀도스시정, 브라질공산당, 타이 글로벌링크 인터넷뉴스 홀리데이판광려행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오늘의 평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로드니아군로자협회 위원장은 《김정일, 인민이 흠모하는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들로부터 열광같은 호모를 받고

계신다.

그이께서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심으로 조선인민의 존엄과 영예는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 누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데 대하여서는 추호의 양보없이 강벌링크 인터넷뉴스 홀리데이판광려행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것을 통해서도 군력강화에 바치신 그이의 헌신에 대해 잘 알수 있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조선은 믿음직한 전쟁역제력까지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로 위용 떨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도 고도의 정치적안정이 보장되었을뿐 아니라 사회의 일신 단결이 더욱 공고해졌다. 그것은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사랑과 민심의 정치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령도자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고있으며 그이를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브라질 쌀 바울로주 쌀도스시 부시장은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젠 쓰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압살공세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국방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들리시어 조선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강성대국을 건설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타이 글로벌링크 인터넷뉴스 홀리데이판광려행사 사장은 영화를 보고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자기가 선택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게 되었고, 김일성주석의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은 반드시 강성대국을 건설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백두산으로 달리는 남북의 민심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천출위상이 그대로 비쳐있는 백두산을 우리 겨레는 누구나 가슴속에 소중히 안고 산다. 이 나라의 천만산악을 거느리고 거역할 수 없는 조종의 산 백두산. 그 이름 한번 부르지만 해도 떨적의 힘 솟고 가슴속에 승리의 신심이 차넘친다.

남덕계에 가슴속마다 백두산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살려는 신념이 역세로 자리 잡고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2월의 봄맞이회 회원들이 가진 모임에서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명산의 명산, 성지중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그 정기와 기상, 위용과 슬기를 체현하시고 탄생하시었다. 백두산명령의 교향집은 비록 수순한 귀를집이지만 민족의 태양, 회세의 위인을 받들어올린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태양의 집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동서고금 어느 위인진, 위인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출한 환경속에서 생의 첫 자취를 펴시고 력사의 가장 위대한 영웅, 걸출한 스승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그 슬하에서 문부총요를 겸비하신 회세의 위인임을 경배하시었다. 력사의 그 나날들에 우리 겨레가 우러르던 백두평명성이

오늘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올라 민족과 인류의 앞길을 찬란히 밝히고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청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두산이 낳은 천출위인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이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 바로 이것이 백두산을 마음의 기둥으로 간직하고 사는 남북겨레들의 그 굳결한 마음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을 백두산의 장엄한 심정을 비유하며 불같은 심정을 터치고있다.

《백두산이자 김정일장군님이시고 백두산의 해돋이이자 김정일장군님의 해돋이이다. 백두산으로 가자. 《겨레여! 동포여! 백두산해돋이로 밝아오는 태양의 새 아침을 보라.》《이남민족이 진정 햇빛을 받아야 할 때는 바로 백두산이다. 백두산에서 통일햇빛을 할 력사의 그날은 멀지 않았다.》《너도나도 펼쳐일어나 백두산해돋이에 동참하자.》

경기도의 한 자동차운전사는 운전간전정에 백두산을 형상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니면서는 동료들에게 《백두산을 머리에 이고 사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을 때마다 백두산을 바라보면 힘이 솟는다.》라고 하였다.

남조선의 한 종교인은 백두산

을 답사하고 돌아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성지이다. 우리 민족을 알고 우리 민족으로 살자면 민족자주의 법과 생명이 힘있게 맥박치고 민족의 밝은 미래가 열린 백두산을 알아야 하고 백두산을 보아야 한다.》

백두의 넓으로 살려는 남북의 민심, 그것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가는 길에 자주, 민주, 통일과 민족의 번영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다.

백두산에 올랐던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펴려하였다.

《...그렇게 남북겨레가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며 조롭게 신성화되고 숭앙하는 조국의 산 백두산,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내가 지금 서있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은 한없이 설레었다. 우리의 민족사는 백두산을 심장에 지닐 때 승리하고 백두산을 멀리할 때는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이 온 정신, 온몸에 차넘치시는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을 믿고 따를 때 민족이 흥하고 또 승리한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어느 한 모임에서 《김정일명승은 담력도 기상도 성격도 취미도 백두산을 닮은 천출명승이다.》라고 말하였고 한 로인은 《자교로 우리 나라의 지역은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 천만산악

이 백두산을 우러러 솟아있으며 이 땅의 강과 호수들은 천지물을 젖힐기로 사처에 뻗어 내려 삼천리를 적시고있고 백두산은 거대한 산이라 하였다. 바로 이 명산에서 21세기를 빛내어 가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올랐으니 백두산을 어찌 자연의 산으로만 대할 수 있겠는가. 백두산은 겨레의 마음속에 솟아있는 성산이다.》라고 하였다.

민족의 모습은 병도자의 모습이며 민족의 기상은 영도자의 기상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기상은 백두산의 기상이었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 자주정치에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높이 고조되고있으며 이 땅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세계에 빛내어나갈 백두의 신념, 백두의 담력이 실려있다.

진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땅에는 세상의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백두산의 기상, 백두산의 자주정신이 도도히 굽어치고있다. 하기에 남북인민들은 백두산을 우러르며 백두산의 기상을 한몸에 체현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기상을 그려보고 력사의 온갖 도둑시련을 단호히 물리쳐나가는 우리 장군님의 의지를 격조하며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현 철

회 위원 최덕준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곳은 너무나 거룩하고 장군님께서 체현하신 현상은 너무나 특유하다. 장군님께서 있어서 백두산은 고향이고 백두산야는 고향집뜨락이었다. 백두산은 김정일장군님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심어주고 무비의 담을 키워준 요람이었다. 천하를 안고 창공높이 솟아있는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은 그대로 장군님께 온 우주를 안을 큰 마음으로 새겨졌다. 그분의 포부는 그래서 백두산처럼 웅대하고 그분의 리상은 그래서 백두산처럼 아득히 높다. 거대한 광풍에도 끄떡없이 솟아있는 백두산의 모습을 보며 성장하신 김정일장군님이시어서 그분의 당돌도 백두산처럼 역세인것이라.》

김정일장군님은 백두산에 솟아온 민족의 태양이었다. 이날민족은 백두산의 해돋이에서 변혁의 의지를 굳히고 통일발돋음을 배배해야 한다. 김정일시대의 아침은 밝았고 그 앞날은 창창하다.

백두산이 낳은 21세기의 태양 김정일명승을 따르자.》

그렇다.

백두의 천출명승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김일성민족은 영원히 백두의 푸른 기상을 떨치며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현 철

자기 민족이 제일

남조선의 넓은 지역에 내린 무더기비로 하여 수십만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무서운 재난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던 주제 73 (1984)년 9월 어느날이었다. 남북겨레들이 당한 뜻밖의 재난을 두고 마음쓰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큰포부를 입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뜨거운 열육의 정이 흐르는 구호물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해 애를 써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이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아까울 것이 없다고, 우리가 저쪽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는 불기운이 완연한 수도의 거리로 경쾌하게 달려갔다.

시원하게 떨어진 대통령으로 즐비하게 늘어난 고층 빌딩들과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들어있는 웅장 화려한 수도의 거리를 바라보시던 그의 심중에는 남북인민들이 자라났고있었다.

일꾼들이 이이께서 차안에서나마 잠시 휴식하실수 있게 되었고 기뻐하고있는데 문득 경애하는 장군님

의 우렁우렁한 음성어 울려왔다. 이이께서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민족분열의 비극은 더 커진다. 때문에 우리는 력사 앞에, 민족앞에 책임지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절결히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창밖으로 흘러가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남북겨레들을 생각하시며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달리는 차안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는 불기운이 완연한 수도의 거리로 경쾌하게 달려갔다.

시원하게 떨어진 대통령으로 즐비하게 늘어난 고층 빌딩들과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들어있는 웅장 화려한 수도의 거리를 바라보시던 그의 심중에는 남북인민들이 자라났고있었다.

일꾼들이 이이께서 차안에서나마 잠시 휴식하실수 있게 되었고 기뻐하고있는데 문득 경애하는 장군님

의 우렁우렁한 음성어 울려왔다. 이이께서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민족분열의 비극은 더 커진다. 때문에 우리는 력사 앞에, 민족앞에 책임지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절결히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창밖으로 흘러가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남북겨레들을 생각하시며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의 우렁우렁한 음성어 울려왔다. 이이께서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민족분열의 비극은 더 커진다. 때문에 우리는 력사 앞에, 민족앞에 책임지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절결히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창밖으로 흘러가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남북겨레들을 생각하시며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반인민적인 처사를 규탄

남조선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적인 처사들을 반대하는 각계의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민주로총은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자기 단체인 《정권》의 반로조, 반노동자정책에 맞서 로조를 사수하고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당국이 《보안법》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진보적 단체와 성원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있다는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민족의 분열을 가슴아파하며 북과 남의 학생들이 통일된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교육활동을 벌려온 교원들 당국이 파쇼악법을 적용하여 탄압한데 대해 규탄하면서 《건교조》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통일운동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보안법》을 당장 철폐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얼마전 사실을 신고 북남사이에 대화국면이 조성되고있는 때에 당국이 대화제거조건을 내세우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대화의 제도조건을 내세우는것이 아니라 회담을 성과적으로 개최하고

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보안법》위반혐의로 여러회동한 재판을 받았는 《건교조》 소속의 한 교원이 무죄를 선고받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당국이 《보안법》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진보적 단체와 성원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있다는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민족의 분열을 가슴아파하며 북과 남의 학생들이 통일된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교육활동을 벌려온 교원들 당국이 파쇼악법을 적용하여 탄압한데 대해 규탄하면서 《건교조》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통일운동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보안법》을 당장 철폐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얼마전 사실을 신고 북남사이에 대화국면이 조성되고있는 때에 당국이 대화제거조건을 내세우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대화의 제도조건을 내세우는것이 아니라 회담을 성과적으로 개최하고

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보안법》위반혐의로 여러회동한 재판을 받았는 《건교조》 소속의 한 교원이 무죄를 선고받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당국이 《보안법》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진보적 단체와 성원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있다는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민족의 분열을 가슴아파하며 북과 남의 학생들이 통일된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교육활동을 벌려온 교원들 당국이 파쇼악법을 적용하여 탄압한데 대해 규탄하면서 《건교조》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통일운동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보안법》을 당장 철폐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얼마전 사실을 신고 북남사이에 대화국면이 조성되고있는 때에 당국이 대화제거조건을 내세우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대화의 제도조건을 내세우는것이 아니라 회담을 성과적으로 개최하고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 설맞이모임 진행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의 설맞이모임이 3일 마슈켄트에서 진행되었다.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과 우즈베끼스민주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의 대사관성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는 우리 민족의 통일되는 세월에 흐를

리해관계의 충돌로 소란한 남조선정국

당》 대표가 나서서 당국자와 민주당 대표사이의 회담을 제기하였지만 민주당 대표는 《새해에산안》강령처리와 관련한 사과가 우선이라야 완강히 주장하면서 그것을 의면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신문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지난 2008년 9월이후 야당대표를 한번도 안 만났다고 하면서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는 요즘날처럼 공중 얼어붙어있다.》고 평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자의 신년명 송과당국의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강령도 야당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민주당은 《실망감만 안겨준 좌담회》, 《지화

자란으로 일관된 공허한 좌담회》로 비난하였으며 다른 야당은 당국자의 신년명송과당국의 《새해에산안》강령처리와 관련한 사과가 우선이라야 완강히 주장하면서 그것을 의면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신문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지난 2008년 9월이후 야당대표를 한번도 안 만났다고 하면서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는 요즘날처럼 공중 얼어붙어있다.》고 평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자의 신년명 송과당국의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강령도 야당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민주당은 《실망감만 안겨준 좌담회》, 《지화

자란으로 일관된 공허한 좌담회》로 비난하였으며 다른 야당은 당국자의 신년명송과당국의 《새해에산안》강령처리와 관련한 사과가 우선이라야 완강히 주장하면서 그것을 의면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신문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지난 2008년 9월이후 야당대표를 한번도 안 만났다고 하면서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는 요즘날처럼 공중 얼어붙어있다.》고 평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자의 신년명 송과당국의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강령도 야당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민주당은 《실망감만 안겨준 좌담회》, 《지화

자란으로 일관된 공허한 좌담회》로 비난하였으며 다른 야당은 당국자의 신년명송과당국의 《새해에산안》강령처리와 관련한 사과가 우선이라야 완강히 주장하면서 그것을 의면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신문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지난 2008년 9월이후 야당대표를 한번도 안 만났다고 하면서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는 요즘날처럼 공중 얼어붙어있다.》고 평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자의 신년명 송과당국의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강령도 야당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민주당은 《실망감만 안겨준 좌담회》, 《지화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평안산원에서 새해 첫날에 또다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지난 1월 1일 0시 하천군 신흥로동자구에서 살고있는 한 명화 (36살) 녀성이 평안산원에서 딸 세쌍둥이를 낳은것이다. 세쌍둥이가 태어난데에 1월의 첫 한달일동안에만도 평안산원에서는 380여명의 어린이들이 태어났다.

우리 녀성들이 사랑의 집, 친정집으로 성답게 부르며 시를 읊어 안기는 평안산원에서 1월 첫 한달동안에 세쌍둥이를 비롯한 수백명의 어린이들이 태어난 기쁜 소식은 당과 국가의 무상치료혜택과 우리 조국인민들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가슴뜨겁게 전하여준다.

세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70여일간 평안산원에서 특별대우에 입선유지를 위한 극진한 의료봉사를 받은 결과 순조롭게 몸을 풀었다.

그런데 세쌍둥이중 셋째의 산모가 출생후 시시각각으로 나빠졌다.

산원책임인공들과 의사, 간호원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진료를 벌려 끝내 세쌍둥이의 기쁨을 가져왔다. 온 산원

바다 건너 자본주의일변방에서 이런 일이다.

도쿄도에서 해산을 앞둔 36살 난 녀성이 진통을 참아가며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고교수의 한 진료소에서 일선부상대에 급히 구급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귀찮게 달려들어 병원을 그의 등을 떠밀던것이었다.

도쿄에 접어드는 진통속에서도 그는 태어날 어린 생명을 생각하며 불어난 몸을 끌고 몸을 병원을 찾아 거리에 나서지 않았던 안이었다.

하나 하나씩 병원마다에서 그를 맞이준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진통보다 참기 어려운 모진 고통과 병원지. 병원. 병원... 그렇게 7개 병원이나 찾아다녔지만 그는 어떤 병원을 당하였다. 단 한번도 병원문안에 들어서보지도 못한채 그 녀성은 자본주의세상을 저주하며 숨을 거두었다.

이것은 예전에만 차례내 비참한 운명이 아니다. 일본의 한 통신이 전한데 의

인간의 생명을 보호증진해야 할 보건사업이 상충되어 논의되었던 치료요구 등이 없으면 임신부이든 새 생명이든 눈앞으로 가까워지고 있고 가까워지면 배척하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색어빠진 현실이다.

70여일동안 평안산원에서 특별의료봉사를 받고 순산한 허준군의 산모와 7개의 병원을 다녔으나 단 한번의 초진도 받아주지 못하고 무서운 진통속에서 끝내 절명한 일본의 임신부는 다같은 녀성이다. 나이도 똑같은 36살 동갑나이가 병원에서서 3번이상 문진기록을 받았던 녀성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밖에도 혼수상태에 빠진 산모가 병원에서 문진기록을 당하여 찬바람부는 밖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 등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인 일들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들의 해산비는 최고 1만US\$에 달하며 산모의 하루임원비는 최고 1200US\$. 갓난애기의 하루임원비는 1400US\$라고 한다.

《수수떡패기논》에 서린 원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초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을 잊지 않도록 하며 자주, 자본가를 비롯한 착취계급의 본성을 똑똑히 알고 로동계급적의식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방전 절산공에서 일었던 김정기주의 집에서 무슨 살이를 하던지 허기장을 가진 농민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못해 어느새 이른봄 죽기까지 이르러 버려진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무런 허씨농민의 이해가 해산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해에 앞을 당장 준 한트로 내 놓지 못할 형편이어서 허씨농민은 하는수없이 정치주놈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초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을 잊지 않도록 하며 자주, 자본가를 비롯한 착취계급의 본성을 똑똑히 알고 로동계급적의식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방전 절산공에서 일었던 김정기주의 집에서 무슨 살이를 하던지 허기장을 가진 농민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못해 어느새 이른봄 죽기까지 이르러 버려진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무런 허씨농민의 이해가 해산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해에 앞을 당장 준 한트로 내 놓지 못할 형편이어서 허씨농민은 하는수없이 정치주놈을

개천시계급교양관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고있다.

리상철동무부 비롯한 일꾼들과 강사들은 시장위원회 지도밑에 계급교양사업을 새롭게 꾸리고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

특히 그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개천원에서 감행한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만행자국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강사들은 당시 개천군 마장리 (오늘의 개천시 부부리) 녀명위원장이었던 리보부녀성의 투쟁내용을 참가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해설해주고있다.

나라없던 그 세월 6살 어린 나이에 지주질머슴을 살면서 갖은 학대와 멸시를 받았던 한 안되었던 리보부녀성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계급적원수들을 잊지 말자

리보부녀성을 비롯한 개천당이 낳은 애국자들의 투쟁이야기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이 출런 피관을 거어 받아내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갈 신념과 각오를 더욱 굳게 가지고있다.

또한 목격자들의 체험담을 통한 교양사업도 활발히 진행



침략자 미제가 또다시 범법하면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결의에 넘쳐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장본인

오늘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할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평화는 인류공동의 염원이다. 인민들은 평화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자주적이고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 평화롭고 안정된 새 세계를 건설하자면 친략과 전쟁을 위한 군사비지출을 줄이고 무력을 축감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각종 군사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세계에서는 군축이 아니라 새로운 군비경쟁이 조장되고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친략과 전쟁행동에 기인된다. 미호전세력은 인류의 평화적항에 역행하여 군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면서 군사장비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말로는 《평화》요, 《군축》이요 하고 오만스럽게 떠돌고있다. 하지만 그 막뒤에서 계속 군비를 확장하고 친략과 전쟁행동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얼마전 미국회는 지난 2011회계년도 국방예산안을 채택하였다. 2010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현 회계년도 국방예산총액은 7250억US\$이며 그중 전쟁지출은 1587억US\$에 달한다. 지난 회계년도에 미국의 군사비는 7000억US\$였다. 이로써 미국은 또다시 세계적으로 군사비가 가장 많은 나라로 되었다.

최근년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 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제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미국에서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방예산의 지출을 제한하고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2011회계년도 국방예산총액은 줄어든것이 아니라 반대로 2010회계년도보다 더 늘어났다. 역대적으로 미안정기배출은 세계경제 패야망을 실현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총적목표로 삼고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여왔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군사비는 해마다 평균 15%씩 늘어나왔다.

현 회계년도에 미행정부가 지출하

려 하는 방대한 군사비가 새로운 전략행위의 개발과 현대화, 《반테러 전쟁》 확대, 해외주둔 미군유지, 각종 군사연습의 강화 등 전략적우세를 차지하고 선제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데 쓰일것은 뻔하다.

2010년 5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오바마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개념을 다시 확정하였다. 보고는 세계에서 미국의 지도적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것, 군사력이 의연히 미국의 《국가안전》의 기초이고 《세계안전》의 기둥이라는 것을 밝혔다.

미제의 세계지배전략의 기동은 힘이 있다. 미국은 군사적강권을 발동하여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군비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있는것도 그와 판된다. 미국이 군비증강에서 기본증점을 두고있는것의 하나는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이다. 미호전세력은 미사일선제타격을 새 세기의 군사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을 더욱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미국은 지구촌 저들의 미사일망으로 뒤덮고 힘으로 세계를 완전히 틀어쥐려 하고있다. 미국은 2011회계년도 국방예산안에서 99억US\$를 미사일방위체계에 투자하려 하고있다. 이 투자규모는 2010회계년도보다 약 7억US\$ 늘어났다. 지금 미국의 미사일방위망은 유라시아대륙을 동쪽과 서쪽에서 압축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있다. 미사일방위체계를 계속 완성하고 그 수립을 확대해나감으로써 다른 대국들의 핵보복타격을 무력화하여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보다 강화하는것이 미국의 의산이다.

미제와 미사일방위체계를 위한 미국과 그의 공동기술개발에 달려있고있는 일본도 군비경쟁에 적극 뛰어들었다.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반경쟁행위로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화근으로 된다.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을 쫓고 가만있지 않고 있다. 소행핵무기 반대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고 잇서는 나라들을 임의의 시각에 선제타격하여 제압하는것이 미제의 전략적목표이다. 미국에서 핵무기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로스 알라모스 핵연구소의 한 국장은 소행핵무기 개발은 전략적목표이다. 미국에서 핵무기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로스 알라모스 핵연구소의 한 국장은 소행핵무기 개발은 전략적목표이다. 미국에서 핵무기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로스 알라모스 핵연구소의 한 국장은 소행핵무기 개발은 전략적목표이다.

오늘 세계에서 핵전쟁위험이 가장 짙은 곳은 조선반도이다.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하여 핵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하고 그것을 다른 나라들로 확대시켜 저들의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는것이 미국외세력들의 목적이다. 이라크가 《위협한 대》로 몰아붙이면서 유엔을 통해 대미탄핵결의를 채택하는 놀음을 벌이고 있다.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은 세계경제야망에 들떠 군비경쟁에 광분하며 새로운 국제적군비경쟁을 조장하고있는 미국의 호전적정책을 똑바로 보고 군축운동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메히꼬, 핀란드, 네덜란드, 단체를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밝힌 정세는 조선반도의 대결본질을 완전히 전환시킬수 있는 대담하고 애국애족적인 태만이 아니라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고있다.

평화와 통일은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전쟁의 원인으로 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남조선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협상제안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전선에 함께 있을것을 기약하는것을 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지지하여 조선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조선인민적내부연합위원회, 내평아시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 평화행동위원회, 선군정치지원회가 공동성명을 발표

농업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부룬디부대통령이 4일 농업부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농업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최근 정부가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수행에 착수한 데 대해 밝히고 농업은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란 초음속탄도미사일 대량생산 개시

이란에서 초음속탄도미사일 대량생산에 착수하였다. 7일 이란이슬람교혁명군위대 총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주일미군의 군사연습 소동

주일미군이 친략전쟁태세를 준비하기 위해 각종 군사연습 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7일 주일미해병대는 오이다현의 히유다사격장에서 또

경영형편 악화, 실업위기 격화

간에 비해 24.8% 감소되었다. 2월 컴퓨터부품제조업체인 엘피다의 실적은 지난해 4.4분기 기업에서 초래된 손실액이 295억부에 달하였다. 한편 전기제품제조업체인 후지쯔의 실적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리윤이 그 전해 같은 기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적침투책동에 비친 불순한 속심

얼마전 우간다를 행각한 미국군사대표단이 우간다군대표들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내용은 소말리아의 평화유지와 관련된것이였다. 회담이 끝난 후 발표된 우간다인민방위군대변인사투어의 성명에는 미국이 소말리아주둔 아프리카동맹평화유지군에 대한 병참지원을 제공하겠다고는 내용이 있었다. 회담에서 우간다는 소말리아의 평화유지사명을 위한 미국의 병참지원과 장비제공조건으로 소말리아에 2만명의 자국 병력을 전개할것을 약속하였다고 했다. 알려진데 의하면 현재 우간다와 부룬디는 정세가 불안정한 소말리아에 8000여명의 평화유지군을 전개하고있다. 이번 미국군사대표단의 우간다행차는 지난 시기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군사적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단계로 갔다. 이 사건이 드러난 후 미국과 유럽나라들은 불안한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군사적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단계로 갔다. 이 사건이 드러난 후 미국과 유럽나라들은 불안한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군사적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단계로 갔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에서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위협한 상태에 있는 약 9400개의 저수지들을 보강하였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방호조각이 개선되고 전력 및 알로생산이 늘어났다. —중국 북동강에서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생산에 큰 힘을 냈고있다. 이 사업의 한 고리로 성에서는 올해 비재배면적을 지난해에 비해 340만 무 더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중국의 청도항에서 올해 1월에 3150만 t의 화물을 처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4% 더 늘어났으

는 기간에 비해 39.85% 증가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4.4분기에 경제가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 증가하였다.



까 메 룬 에서 룬 나무 생산

하리리 암살사건의 주범은 누구인가

최근 메바는에 관한 특별재판소가 하리리 암살사건과 관련하여 메바는에 국력강조적인 히즈볼라파의 고위급인물들을 기소할 계획이라는 여론들이 나돌고있는것으로 하여 메바는정세가 긴장되고있다. 메바는대통령은 메바는에 관한 특별재판소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자기 나라에 닥쳐올게 될 분렬의 위험을 막기 위해 민족적합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메바는에서의 안정과 민족적단합을 파괴하기 위해 적대적감정을 야기시키고있고 회의를 기다리고있다.》고 말했다.

하리리 암살사건이란 2005년에 메바는의 수도 바이루트에서 이집트 메바는수상 파피코 하리리가 폭탄폭발로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서방은 객관적중립도 없이 무리대로 수리아에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비난해나

이스라엘군의 폭압 만행

이스라엘군이 5일 가자시의 동부지역에서 자갈채취를 하던 팔레스타인노동자들에게 마구 사격을 가하여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만행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아지는 나토군 들어와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나토군 병사수는 30여명에 달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적침투책동에 비친 불순한 속심

아프리카 동맹이 창설된 후 아프리카나라들은 중요한 국제문제해결에서 단합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아프리카가 무시할수 없는 대륙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아프리카의 자원은 세계경제발전에 절실한 필요조건으로 인정되고있다. 원유와 광물 등의 천연자원에 여러 발전된 나라들이 눈독을 들이고있다. 이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아프리카에 똥고들여넣는것은 사실이다. 2009년 12월 아프리카출신의 한 남성이 네델란드에서 출판한 미국행정기관에서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미국은 어떻게 하나 아프리카를 거머쥐려 하고있다. 여기에서 미국이 중시하는것이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수립하는